



재실에서 만나는
성종임금의 악학계범과

흥겨운 우리국악

조선왕릉
문화행사

국악공연 안내

2018.10.24(수) / 10.27(토) 2회 공연(12:10~13:10)

선릉 · 정릉 재실과 광장



공연진



| 사회 및 해설 | 예찬건

- 국가무형문화재 제30호 가곡 이수자
- 선비문화기획 대표
- (재)월하문화재단 사무국장



| 소리 | 박준길

- 국가무형문화재 제29호 서도소리 전수교육조교
- (사)서도소리보존회 이사



| 거문고 | 강혜진

- 한양대학교 음악대학 국악학 박사수로
-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강사
- 한양국악연구소 대표
- 예당악회 악장



| 대금 | 전인근

-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졸업
- 단국대학교 박사과정
- 국악고등학교 강사



| 피리 | 이민하

- 국가무형문화재 제46호 피리정악 및
- 대취타 이수자
- 한양대학교 국악과 졸업 및 동대학원 수료



| 25현가야금 | 조영재

-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학 석사
- 가야금영재의 '필연' 앨범 발매
- 국제뷰티산업교역협회 홍보대사
- (사)가야금연주자협회 정회원
- 한양가야금연주단 총무직위 연주자



| 타악 | 서지선

- 한양대학교 국악과 졸업 및 동대학원 졸업



| 신디사이저 | 강진아

- 선화예중 예고 졸업
- 독일 슈투트가르트 국립음대 석사
- 선화예중 예고 실기강사

흥겨운 영우리국악

재실에서 만나는
성종임금의 악학계범과



〈연주곡목순서〉 2018. 10. 24(수) 12:10~13:10 / 장소 정문광장 내 무대

사회 & 해설 예찬건 (국가무형문화재 제30호 가곡 이수자)

1. 정악(세악)합주 '천년만세(千年萬歲)'

거문고 강혜진 / 대금 전인근 / 피리 이민하 / 장고 서지선

천년만세는 수명이 천년만년 이어지기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풍류음악 중에서 실내악 편성으로 연주하는 합주곡이다. 계면가락도드리 - 양청도드리 - 우조가락도드리 등 세 개 악곡으로 이루어진 모음곡으로, 영산회상과 함께 조선시대 선비들에 의해 주로 연주되던 곡이다. 느린 한배의 첫 곡인 '계면가락도드리'에 이어 빠른 한배를 가진 '양청도드리'가 연주되고 마지막 곡인 '우조가락도드리'에서 다시 속도가 느려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정악계통의 음악 중 가장 빠른 빠르기를 가진 음악으로 매우 흥겨운 곡이다. 오늘은 계면 가락 도드리(1각~14각)·양청도드리까지 연주한다.

2. 악기 소개(악기별 소리듣기)

거문고(玄琴) 삼국사기에는 '왕산악(王山岳)이 자신이 스승 지은 곡을 타매, 그 음악이 어찌나 그윽하였던지 검은 학이 날아들었다 하여 현학금(玄鶴琴)이라 이름하였고, 뒷사람들이 학(鶴) 자를 떼어 버리고 현금(玄琴)이라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야기는 믿기 어려운 전설이다.

거문고는 신(神)과 고구려의 국명을 뜻하는 "갑"·"검"과 고대 현악기의 통칭이던 "고"의 합성어로서 "감고" 또는 "검고"가 거문고를 음변(音變)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현재의 거문고는 6줄인데, 1째 줄 문현(文絃), 5째 줄 쾌하청(桴下淸), 6째 줄 무현(武絃)은 개방현(開放絃)으로 주(柱: 안죽)로 버티고, 2째 줄 유현(遊絃), 3째 줄 대현(大絃), 4째 줄 쾌상청(桴上淸)은 16개의 작은 나무쪽(괘 桴: fret=줄바니)위에 얹혀 있다. 거문고는 백악자정(百樂之丈)이라 하여 선비의 높은 기상을 나타내는 현묘한 악기로서 숭상되어 왔다.

대금(大琴) 중금, 소금과 함께 신라 삼죽(新羅三竹)의 하나로 일컬어지는 대금은 가로저는 하나로써 속칭 (저대)로 통하는 우리나라 고유한 횡관악기이다.

피리(箏篳) 피리에는 <향피리>, <세피리>, <당피리>의 3종류가 있다. 대나무의 껍질을 벗긴 다음 두 겹으로 허(설)를 만들고, 날라리는 갈대 마디 있는 쪽을 질라 중간을 실로 짚록하게 붙들어 맨다. 홀 허로 된 악기의 음색은 맑고 명랑한데 비하여 겹허로 된 피리의 음색은 어두우며 시적이고 목가적이라고 할 수 있다. 향피리는 관현악 편성에 주로 사용, 세피리는 가곡, 가사, 시조 등의 반주에 주로 사용되며, 당피리는 주로 당악계통의 음악(ex, 보허자, 낙양춘, 여민락만, 여민락영, 정도방곡 등)에만 사용된다.

해금(奚琴) 중국(진나라) 현도의 계통의 반은 것으로 당나라때 요하 상류 북방 호적들 중에서 해부족에 속하는 유목민들 사이에서 생겨난 이래 송나라 원나라를 거쳐 성행한 일현악기의 대표적인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고구려 때부터 궁중제례나 연악 향악에 연주되어 왔고 뒤에는 당악에도 민속악에도 널리 연주되고 있으며 (계금)이라고도 한다. 해금에는 악기제작 재료 팔음 즉금, 석, 사, 죽, 포, 토, 혁, 목이 모두 다 들어 있는 악기이다.

장고(杖鼓) 우리나라 향악, 당악, 민속악에 가장 널리 사용되는 절주악기의 한 종류이다. 띠 이름으로 (세요고)라고도 한다. 세요고는 양편 머리가 크고, 그 허리가 가늘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고, 장고는 오른손에 장(杖), 즉 채를 들고 치고, 왼손으로 북편을 치는 데서 온 이름이다.

신디사이저(Synthesizer) 요악전자발전기(電子發振器)를 사용하여 온갖 음을 자유로이 합성할 수 있도록 고안한 악기로 피아노 선율을 대신하기도 하고, 많은 창작곡들의 반주악기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건반악기 모양의 전자악기로, 발전회로에서 얻은 단음을 전자회로에서 가공하여 여러 가지 음을 만들어낸다.

3. 25현가야금 독주 <빛 속에서 춤을- Dancing in the Rain> 성민우 작곡

25현가야금 조영재

어른들은 힘들고 지치는 일이 있어도 그 감정을 애써 숨기려 한다. 이 곡은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고자 묵묵히 견뎌보면 내리는 비를 맞으며 춤을 출 만큼 좋은 일이 생긴다는 의미를 가졌다. 지금 내리는 비는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상처가 되겠지만 씩씩하게 견디면 결국 행복의 빗방울이 되어 쏟아질 거야.

4. <프론티어(Frontier)> 양방언 작곡

거문고 강혜진 / 대금 전인근 / 피리 이민하 / 25현가야금 조영재 / 타악 서지선 / 신디사이저 강진아

프론티어(Frontier)는 양방언 4집 앨범인 <Pan-O-Rama>앨범에 수록된 곡으로, 국악(타악)과 접목한 곡으로 '부산아시아게임'의 대표곡으로 사용되기도 했다. 오늘은 국악기와 함께 연주되는 프론티어 감상한다.

이곡의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인 양방언(1960.01.01생, 일본명:료 구니히코)은 재일한국인 2세로 5세경부터 동경 예술대학원 교수인 <다카자니 시즈요코>에게 피아노를 배웠다. 하지만 본격적인 음악활동은 대학재학시절부터 이루어졌다.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일본 의과대학에 진학한 그는 학업과 동시에 세션키보드 플레이어로 활동했다. 이때 그는 많은 아티스트와 친분을 쌓으며 대학을 졸업하고서는 의사로서 1년간 병원에서 근무하기도 했으나, 의사로서의 삶을 살기보다는 직업음악인이 되기로 결심하고 세션 뮤지션겸 프로듀서로서의 활동을 시작했다. (출처: 양방언 앨범 프로필)

5. 가야금 거문고 이중주 <바다 이야기- The Story of Sea> 성민호 작곡

거문고 강혜진 / 25현가야금 조영재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이루어져있다. 남해, 서해, 동해 바다를 주제로 한 민요인 동그래당실, 뱃노래, 동해바다를 가야금의 전통적인 특징을 살리어 재즈 반주에 얹어 연주하며 여기에 거문고의 역동적인 연주가 곁들여지는 이중주 곡이다.

6. 민요메들리 박준길(국가무형문화재 제29호 서도소리 전수교육조교)

박준길 / 박초현 / 김가은 / 신재연 / 최재원

축원경(장고반주), 간장타령, 금드령타령, 풍구타령(MR)

7. 다같이 <아리랑, 진도아리랑>

노래 박준길 / 거문고 강혜진 / 대금 전인근 / 피리 이민하 / 25현가야금 조영재 / 타악 서지선 / 신디사이저 강진아

유네스코에 등재된 아리랑 그리고 흥이 절로 나는 진도아리랑을 관객과 같이 불러 봅시다.